

## 중화의 새기원을 맞이하자!

2006년을 회고해 보면 《9평》과 《3퇴》 물결은 중화대지를 휩쓸고 있으며 중공의 멸망은 이미 력사의 필연으로 되었다. 2006년 3월, 탐관오리를 반대하는 호북황파량식계통 100여명 유권(維權-권리수호) 로동자들은 분노하여 무한시위위원회를 향하여 공개탈당성명을 발표했다. 2006년 7월, 광서니동진 47명 촌민들이 잃은 땅을 되찾으려고 항쟁해도 결과가 없자 룡안현위를 향해 연합탈당성명을 발표했다.

2005년 3월, 군공계통 46명 로군인들이 탈당성명을 하여 군인단체탈당의 서막을 열어 놓았다. 2006년 7월, 한 해군고위급군관이 탈당성명한 후 탈당센터에 《3퇴》 물결을 추진할데 관한 건의를 제출하기도 했다.

남방 모성의 일부 탈당간부들이 100여명 성급부터 과장급에 이르는 간부를 상대로 상세한 조사를 한 결과, 가명으로 41명이 탈당하고 잠시 32명이 탈당하지 않았으며 타격받을가 우려되어 14명이 탈당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들은 중공이 민심, 군심, 당심을 모두 잃었음을 충분히 설명한다.

당, 정, 군용사들이여, 모두 일떠나서 《3퇴》 조류에 호응하여 사악한 중공을 철저히 해체시키고 중화의 대기원을 맞이하자!

## 신비로운 혈우(血雨)

오늘 늦은 시각에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4년 전에 하늘에서 신비로운 혈우가 내렸다. 인도 과학자 거더프리-루이스 박사는 《세포와 비슷한 붉은 생명립자가 포함된 이 붉은 액체의 비는 <생명립자>이며 그 속에 DNA 흔적은 없으며 비록 인류의 세포가 아니지만 <생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결과 과학자들이 판단하기를 그것은 육지 생명기원의 물질이 아니며 원래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생명기원의 물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은 긍정적으로 우리 인류보다 지혜가 더욱 크며 최저한도로 다른 성구에서 살 것이다.

과학자들이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 생명이 휘멸되었고 왜 이렇게 집중된 시간내에 휘멸됐는가? 하는 문제이다. 의심할바 없이 이 문제는 인류에 대한 한낱 도전이 아닐 수 없다.



## 대법사부님의 은혜를 회고 (련재)

### 4. 신기한 공능

한 무한대법제자가 사부님을 따라 호북무당산에 갔다. 차가 무당산 문어구에 들어섰을 때 그가 차창밖으로 내다 보니 온산엔 신선들이 네모형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있는 사람은 금빛이 반짝였고 고대인의 장식으로 머리에 금관을 쓰고 금갑옷을 입은 특별히 높고 큰 부처가 제일 앞에 서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사부님을 향해 똑같은 동작을 했다.

---한 무한대법제자의 글에서 발췌

나의 한 친구가 북경 계대사에서 사부님께서 직접 시범하는 동작교습녹화를 찍었다. 제 3 조공법 《관통량극법》을 찍을 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 굵은 소나무도 흔들거렸다. 그가 《바람이 세여 찍기 힘듭니다.》라고 말하자 사부께서는 평온하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촬영기를 조절한 후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난 바람을 멈춰 세우겠소.》 그가 재빨리 촬영기를 조절하고 《리대사님, 촬영기를 조절하였습니다.》고 말하자 사부님 주위의 바람은 곧 멈춰섰다. 제 5 조공법 《신통가지법》을 찍을 때 삼각발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렌즈가 사부님을 맞출 수 없어 마음속으로 대사님께서 오른쪽으로 좀 옮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자 가부좌한 사부님은 위로 뜨면서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졌다.

---한 대련대법제자의 글에서 발췌

북경전수반이 시작되어서 며칠 지난 어느날 오후,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치더니 큰비에 우박이 섞여 내렸다. 양철지붕은 요란한 소리를 냈고 선생님의 강단에 비가 짙게 떨어졌으며 등불마저 꺼져 장내가 캄캄했다. 이때 선생님은 두눈을 감으시고 두손바닥을 위로 가슴에 한참 올려 놓더니 손으로 무엇을 낚아 쥐고서 책상위에 놓인 약수물을 마시었다. 그리고 손에 쥐는 것을 병속에 넣었다. 이때 비가 멈추고 해가 나왔으며 실내등도 하나하나 켜졌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계속 강의를 했다.

---한 북경대법제자의 글에서 발췌



### 새소식

## 일본법률평공수련생들이 초불추모활동을 거행

12월 31일 저녁 새해를 맞아 일본 법률평공수련생들이 일본주재 중공대사관 앞에 모여 초불추모활동을 거행하고 7년이 넘는 박해로 중국에서 사망한 3천여명의 법률평공수련생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중공의 잔인한 만행을 규탄했다. 한편 일본 중부지역의 법률평공수련생들은 나고야에 있는 중공영사관 앞에 모여 중공의 잔인무도한 박해에 항의하고 박해로 사망한 법률평공수련인들을 추모했다.

## 역사자료 며칠사이에 소련공산당이 해체

1991년 8월전에 누가 소련공산당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해 8월 19일에 강대했던 소련공산당이 며칠사이에 해체되어 세계를 놀래웠다.

## 연변박해진상

박해로 사망 한  
대법제자 박길자

길림성연길시방역소 의사이며 대법제자인 박길자(49 세)는 대법을 얻기전 간장훈수성등 여러가지 질병으로 병원에서 《사형》판정을 받았지만 대법을 얻은 후 병이 완쾌되고 온몸 이 거뻐해졌다. 그는 《대법이 나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늘 말하곤 했다.

2001 년, 그는 대법을 실증하다가 악경에게 강제압치되어 연길시공안국에서 참혹한 박해를 받았으며 그해 9 월에 로동교양판결을 받고 갖은 고생을 겪다 몸에 엄중한 병적상태가 나타나 병치료 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진 박해속에서 견정하게 법을 지켜 온 박길자는 자신의 중한 병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도하는 일에 또다시 떨쳐나섰다. 공안에서 여러차례 그를 체포 하려고 했지만 허탕을 쳤다. 2003 년 3 월 그는 부득이 집을 떠나 류리걸식해야 했다. 몇년동안 간고한 생활환경 속에서 그는 모진 정신타격과 시달림을 받아 지칠대로 지쳐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 2001 년 1 월 8 일, 그는 병원에서 불행히 사망했다.

## 압치된 조양천대법제자



리홍원, 박광훈, 심씨

2007 년 1 월 11 일 룡정시조양천 대법제자 리홍원, 박광훈, 심씨 3 명은 대법진상전단지를 배포하다가 악경들에게 붙잡혀 하루동안 심문을 받으며 혹된 매를 맞았다.

법륜공동수들은 정념을 발하여 그들이 하루 속히 마귀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하자.

## 악보를 받아 죽은 류원준

장춘시 전 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이며 정법위원회 서기이며 장춘시공안, 검찰원, 법원과 610 사무실을 주관하는 류원준은 1999 년 7.20 부터 법륜공을 박해했다. 특히 2002 년 《3.05》 장춘시법륜공학원이 법륜공진상을 텔레비전삽입방송했을 때, 그는 《사면없이 죽이라》는 강택민지시에 따라 10 일 동안 5000 여명을 강제로 불법체포했으며 수많은 법륜공학원들을 중하게 판결하고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였다. 악에는 악보가 따르는 법으로 2006 년 5 월 4 일, 류원준은 간암으로 죽었다.

## 연변주 《610》 악인방



류위	연변주 610 사부실	前주임	0433-2992600
임지기	연변주 610 사부실	주임	13994389168
류문충	연변주 610 사부실	부주임	13904489168
하경림	연변주 610 사부실	부주임	13069238777
김창범	연변주 610 사부실	부주임	13069238777

## 법륜이 높이 비추다



나는 룡녕성금주시사람이며 자동차운전수이다. 나는 법륜공을 련마한 적이 없으나 어머니는 대법수련자이다. 어머니는 늘 저에게 위험한 일에 부딪칠 때 《법륜대법이 좋다》고 외우면 사부님께서 위험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알려주었으며 나에게 아주 정교하게 만든 호신부를 주었다.

2003 년 여름 비내리는 어느날, 나는 안해와 함께 차에 짐을 싣고 심가대의 일부구간인 산길을 힘겹게 지날 때 불시에 흙과 돌이 섞인 산사태가 산위에서 부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아래로 덮쳤다. 삽시에 자동차는 《흙더미》로 변해서 강가로 밀려갔다. 불현듯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는 큰 소리로 《법륜대법이 좋다》라고 외치자 자동차는 곧 강변에서 반미터도 되지 않는 곳에 멈춰섰고 비도 끊었다.

나의 전화를 받은 화물주인은 인츰 마을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서 차를 끌어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얼마나 위험하였는가? 당신은 참으로 운이 좋아! 높은 곳으로 부터 길운의 별이 비쳤네!》라고 말했다. 나는 그분들을 보고 《길운의 별이 비친 것이 아니라 법륜이 높이 비추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때로부터 나는 매일 일어나서 《법륜대법이 좋다.》라고 세번 외우곤 했다. 그러면 이 하루는 모두 순리로웠다.



중공은 왜 《9 평》을 두려워 하는가?

중공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줄곧 봉쇄정책을 실시하여 대내로는 당문화를 주입하고 백성을 우롱했으며 대외로는 협박하고 회유했다.

2004 년 11 월 하순, 《대기원》에서 《9 평》을 발표하자 삽시간에 국내외사회에 강렬한 반응을 일으켰다. 《9 평》은 부동한 정치관념, 부동한 신앙, 부동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한 층차와 부동한 각도로 부터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심각하게 철저히 그리고 계통적으로 폭로했다. 《9 평》을 읽으면 마치 몸에 얹매었던 매듭이 일시에 풀리듯이 마음이 후련해진다.

중공은 수많은 중생과 신에게 하늘에 사뭇치는 큰 죄를 지었다. 신은 반드시 사악한 중공을 청산할 것이다. 중공을 놓고 말하면 《9 평》을 통해 그의 사악한 본질과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포악한 독재정권이 뒤흔들리기 시작했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워낙 싸우기를 즐기는 중공이건만 《9 평》의 매 구절마다 사실이고 진리여서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어 병어리 랭가슴 앓듯 끄끄거리고 있다.

《9 평》이란 말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중공은 아무리 인터넷과 우편계통을 봉쇄했지만 《9 평》은 더 널리 퍼져 사람마다 앞다투어 《9 평》을 읽고있다. 중공은 《선진확보》운동을 일으켰지만 거세찬 《3 퇴》물결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지금 1700 만명이 퇴당, 퇴단, 퇴대했다. 《9 평》은 중공을 멸망시키는 천서(天書)이다. 중공의 멸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